

이윤하 의원, “나무 은행제 도입 필요하다”



이윤하 의원이 푸른도시사업소 업무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사진=평택시의회 방송 동영상 캡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증설을 위해 훼손한 완충녹지 현장.

개발지서 뽑아낸 나무도 살리고 필요한 사람은 저렴한 가격에 식재

개발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평택시에 ‘나무은행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각종 개발지에서 뽑혀져나오는 나무를 폐기처분하지 말고 은행처럼 맡겨 필요로 하는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기형)는 6월12일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회의에서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이윤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평택시 공원조성 비율이 낮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평택시 공원조성 비율은 30.2%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8번째로 저조하다.

이 의원은 “평택시 임야비율은 16~17%대로 전

국 평균이 70%에 가까운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다”면서 “상황이 이런 만큼 평택시에서는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공원의 기능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시민의 건강과 생태환경을 위해서 공원의 조기 조성과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완충녹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시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나무를 많이 심고 있는 점을 들며 “완충녹지 해제가 능사는 아니다”면서 관리에 신중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증설과 관련, 점용허가를 받고 훼손하는 완충녹지 내 나무 처리 실태 등을 질의하며 ‘나무은행’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평택시는 많은 도시개발을 하고 있다. 공공과 민간부문 개발지에서 뽑혀지는 나무가 많은데 대부분 폐기처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공공이 주도해서 나무은행제를 운영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무가 필요 없는 분들은 나무은행에 맡겨놓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갖다 쓰는 것처럼 좋은 것도 없을 것”이라며 “이는 나무의 생명을 살리고 민과 공공 모두 예산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박명호기자